

출석 않고 학위 받은 시장... 수업 안듣고 학점 딴 연예인

교육부, 학사부정 실태조사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
동신대, 특혜 의혹 사실로 밝혀져
부산경상대, 총장 파면 위기까지

현직 연예인과 고위직 공무원이 대학에 입학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과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전문대는 대규모 부정입학으로 총장이 파면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학사·입학부정 의혹을 받은 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신대가 지난 2005년 대학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강의 담당 교수들은 김 시장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학칙에 어긋나고 보강을 했다는 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

거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기관고고를 하고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게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수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2004년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

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여수시청과 전남 나주에 소재한 동신대 거리가 144km에 달한다면 부실 출석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했고,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 의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과목 A+를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교육부는 '공무원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신대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아이돌그룹 멤버 윤두준·이기광·용준형·육성재·서은광과 가수 장현승 등 연예인 학생 7명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점과 학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학점과 학위를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이들 연예인 학생들은 서울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약 300km 거리에 위치한 동신대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학점과 학위를 취득한 의혹을 받았다. 이곳 방송연예학과와 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은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학칙에서도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었으므로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방침은 무효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가수인 A 씨의 경우는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했으나,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5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경력

이 있어야 한다'는 해당 학교 겸임교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소재 전문대인 부산경상대는 2016~2018년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전과목 낙제(F학점)를 받은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현 총장의 파면과 전 입학실장의 해임하는 등 28명에 대한 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또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부당한 학점을 받은 학생에 대한 학점 취소와 학칙 개정 등을 통보했다.

부산경상대는 또 2010년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8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임 총장과 법인 과장은 중징계를,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고, 부동산 매입 차액 회수와 재산 활용 계획서 제출 등을 통보했다.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중앙대 학부모 대상 입시간담회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21일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 B502호에서 고등학생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식사를 갈색 종이봉투(brown-bag)에 담아 단출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하며, 행사 당일 참석자들에게도 다과와 음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앙대 입학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시간여 동안 중앙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학생부종합전형 입시결과와 합격사례발표,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방향 등을 입학사정관이 직접 설명하며, 사전 취합한 Q&A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일정은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 ICT 창업 경진대회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융합창업 기업가센터와 SW중심대학이 최근 제1회 '2018 세종 ICT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ICT분야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참가 조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총 21개 팀, 44명이 참여했다.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에 장학금과 상장이 수여됐고, 참가한 21개팀 모두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 지원됐다.

대상은 'NFC 기반의 자동 주문 시스템'을 개발 중인 Tagtik팀(경영학부 최성

일 외 3명)이 차지했다.

수상자인 최 씨는 "세종대와 미국 산호세대학에서 공동 주최하는 여름 인턴십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세종대 융합창업기업가센터에서 사업화 역량강화 멘토링을 받았다"며 "향후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인기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세종대는 이번 대회 수상팀은 물론 모든 참가 팀에 창업을 위한 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사업 연계를 통한 정부자금 지원이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명대-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광상품 개발 MOU 체결

상명대학교(총장 백용기)는 디자인ODA센터(센터장 김현정)가 지난해 KOICA 민관협력인큐베이팅(아카데미 파트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4~11일 현지 조사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던 중 지난 8일 루앙프라방 현지에서 라오스 산업통상부와 현지 관광상품 개발 및 디자인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명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현지 산

업통상부 공간 내에 상명대 디자인센터 운영 공간과 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1차 조사대상자인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낙후된 작업환경을 개선해 관광상품과 특산물 개발을 위한 현대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중심 도시로 지역 산업의 40% 이상이 관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가내수공업형 작업환경과 시설로 낙후된 지역이다. /한용수 기자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생활 미리 배우자”

예비 초등생 대상 교육상품 붓물 친구 사귀기·발표·영어 등 다양

올해 초등학교 입학이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예비 초등생 대상 교육업계 관련 상품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각 교육기업들은 예비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 중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좋은책신사고의 어린이 단행본 브랜드인 좋은책어린이는 초등학교 생활을 미리 간접 경험하도록 한 동화책을 출시했다. 어린이 단행본 '초등학교 생활 교과서' 시리즈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가 바른 생활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작 동화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친구 사귀기, 발표하기, 식습관, 공부 습관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예비초~초2학년 대상으로 총 15권이다.

좋은책어린이 김희전 부사장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학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책 읽기와 놀이 등



'초등학교 생활 교과서' 시리즈 /좋은책어린이 헬로리딩 세계명작동화 /금성출판사

을 함께 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 주면 좋다"고 조언했다.

금성출판사는 영어와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헬로리딩 세계 명작 동화'와 '헬로리딩 빛을 남긴 사람들'을 선보인다. 헬로리딩 시리즈는 예비초등학생은 물론 영어원서를 읽기 어려운 유아, 초등 학생을 위해 모국어를 활용해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중 언어 프로그램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헬로리딩 세계 명작 동화는 '책과 콩나물', '이솝이야기' 등 스테디셀러 세계 명작 동화 60권으로 구성됐으며, 헬로리딩 빛을 남긴 사람들은 에디슨, 스티브잡스 등 위인동화 60권짜리다. 전집과 함께 헬로리딩 눈술 & 토론 1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들의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 주는 밀도 있는 독후활동이 가능하다.

초등 전과목 자기주도학습관 스마트에듀모아는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스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펀지는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한글, 연산 기초 학습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과 함께 ▲풀어내기 ▲선택하기 ▲필기인식 ▲선긋기 등 다양한 학습으로 기본 학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한글학습을 통해 글자 익히기부터 글자의 구성원리까지 익히며, 초등 교과에 나오는 어휘와도 미리 친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용수 기자

윤선생 7~9세 맞춤 영어교육 '초통영' 출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7~9세 맞춤 영어학습 상품 '초통영(사진)'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통영은 '초등학교에서 통하는 영어'의 줄임말로, 본격적인 공교육 영어수업을 앞둔 예비초등·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읽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선생 측은 "이 시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흥미 유발과 동시에 학습의 결과도 원하고 있다"며 "초통영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파닉스(읽기)와

말하기 영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초 영어교육 상품"이라고 말했다.

초통영은 총 12개월 과정으로 '초통영 파닉스 완성 패키지(6개월)'와 '초통영 말하기 완성 패키지(6개월)'로 구성된다. 파닉스 과정은 영어 읽기의 기초가 되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익힐 수 있어 보는 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교재 18권, 미니북 22권과 알파벳 쓰기 노트, 알파벳 박



스, 게임북, 입체글자, 나의 그림사전 등 다양한 교구를 제공한다.

말하기 과정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실생활 영어표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특히 교재, 교구뿐 아니라 집중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인 'SPEAKING BUS'가 학습 앱에 포함되어 있어 게임처럼 재미있게 말하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용수 기자